고등학교 때부터 컴퓨터와 인터넷망등에 관심이 많아서 이공계열로 진로를 정한후, 컴퓨터 네트워크 분야로 장래희망을 생각하면서 인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전공수업을 듣던 중 2학년 1학기에 수강한 프로그래밍 프로젝트라는 수업을 통해 대학 입학 후, 처음으로 팀원과 함께 요구사항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한 적이 있습니다.

C언어와 실시간으로 구동되는 리눅스 서버에 mariadb를 구축해 콘솔창으로 TCP/IP 통신 프로토콜로 구현한 랜덤 채팅 프로그램을 개발 하면서, 그 당시 4학년, 3학년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이때부터 개발자의 진로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저는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C언어와 JAVA기초만 안 상태에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완성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 개발에 대해 많은 흥미를 얻었습니다.

그 후, 저는 3, 4학년에 전공선택으로 분산클라우딩,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과목을 중점으로 들었습니다. 회로망이론과 디지털통신 등과 같은 하드웨어를 다루는 전공보다 앞서 서술한 소프트웨어 과목을 수강할 때, 더 흥미가 생겼었습니다.

20년도 초반에 코로나19가 터지고 학교의 모든 수업이 비대면인 상태에서 제데로된 팀협업 개발을 할 기회가 적었지만, 좋은 교육과정과 팀을 이루어서 실제로 JAVA로 협업 개발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 관한 정보를 찾아서, 22년도 2월에 교육기관에 등록후 JAVA로 MVC 모델1 방식부터 MVC 모델2 방식과 mariaDB을 이용해 내부 웹 동작을 하고, jquery와 js와 css, html을 활용해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세미 프로잭트를 구현하였고, 그후 Spring과 각종 framwork, js, 오픈api, 자바 라이브러리를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웹 프로그램을 구현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교에서 구현한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요구사항과 기능이있어서, db설계부터 내부 프로그램 설계까지 저에겐 새로운 접근이였고, 설계를 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설계도 여러 팀원들의 의견이 달라서, 최적의 설계방법을 도출하는것도 문제였고, 내부 프로그램 코드 구현부터, 사용자에게 인터페이스를 어떤 방법으로 더 최적으로 보여 줄 지까지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이 해결 경험을 통해 포로그램 개발 방법은 정말 여러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팀원들간의 생각이 다르거나 코드 작동애 문제가 생기면, 같이 해결하고 오류를 잡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SPRING을 통해 구현하는 웹 프로그램을 개발할때, 팀장으로 참여하여서, 프로젝트 ….

학교에서 생각했던 개발자의 진로를 이 과정을 통해 더욱 명확해졌고, 프로잭트 진행을 통해 윤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로젝트는 팀장으로 진행하면서 개발 외적인 문제까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성장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는 더 큰 무대로 가서 회사라는 곳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개발자일을 하면서 제 자신을 더 상장시키고 싶습니다.